

# 풍수와 환경교육

## Fengshui and Environmental Education

권선정(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, sjkwon85@dreamwiz.com)

본고는 그 동안 한국(동양)의 전통지리학 또는 환경인식체계로서 이해되어 온 풍수가 지리·환경교육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. 환경교육의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환경, 또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 등 주로 인식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, 특히 전통적 환경인식체계로서 풍수의 인식론적 전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.

최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'환경의 위기'와 관련해 그 기저에는 인간중심적 환경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그것이 곧 인류생존의 위기('문명의 위기')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임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인간중심적 입장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생태중심적 관점이라는 사실은 그것의 풍수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게끔 하는 의미 있는 조건이 된다.

이와 관련해 풍수의 인식론적 특징을 풍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풍수 동기감응론(同氣感應論)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. 풍수에서는 감응의 전제조건으로 현상들간의 동기(同氣)관계를 강조하고 있다. 여기서 동기관계를 가능케 하는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, 이는 같은 부모슬하의 형제·남매관계를 '동기간(同氣間)'이라 부르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즉, 동일한 뿌리(근원)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현상들간의 동기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. 풍수에서는 이러한 부모-자식간의 동기관계를 전제로 한 감응관계를 '친자감응(親子感應)'이라 부르기도 한다.

그런데,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풍수에서는 이러한 친자간 즉 인간간의 동기관계 외에 세계 내 존재들간의 동기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. 즉, 풍수를 포함하는 동양적 사유방식에서 세계 내 존재들은 기(氣), 도(道), 리(理), 태극(太極, 無極) 등으로 일컬어지는 동일 근원의 다양한 현시(顯示)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. 그렇기에 풍수 동기감응의 설명방식으로 많이 인용되는 "동산서봉영종동응(銅山西崩靈鐘東應)", "목화어춘울아어실(木華於春栗芽於室)" 등의 표현은 세계 내 존재 중 무생물과 생물을 대표하는 사례를 통해 동기간의 감응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. 결국 풍수 동기감응은 '천인감응,' '지인감응' 등으로 대변되는 동양적 사유방식의 자연(환경), 인간, 그리고 자연(환경)-인간간 관계에 대한 독특한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.

이렇게 볼 때 풍수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존재들은 동일 근원에서 출발한 '동기간'으로서, 그들 간의 관계는 인과성이 아닌 동시성과 순환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'생태적 동기관계'라고 할 수 있다. 결국 인간의 인식론적 전환을 강조하는 최근의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생태적 동기관계로 이해되는 풍수 동기감응은 생태중심적 환경철학의 동양적 표현으로 그 의미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.